

붉은백일장 중등부 우수상

연 등

장정환 <동대부중 3>

사슴이 그리워
집앞에 섰네
한세상 시늬겨워
산속을 찾다
나뭇잎이 흩어지는
적엽구
처마끝 풍경의
익로움
찬불가 낮은소리
어전에 웃음소리
연등에 담긴 소망이
조급씩 이루어진다
적알상에도 연꽃이 핀다

제1회 전북파리타 백일장 장원

사월초파일

이영미 <전주 중앙여고 2>

아주 오래전
사월의 어느날
머리서 바람에 실려온 매한씨
푸른 산 어느 곳에 내려앉아
씩씩 익습니다
아침마다 생명을 담은
조그만 모둠으로 자갈 수 있어
보이지 않는 벌레등에까지
번갈 수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 푸른 도봉을 경치고
때론 허사한 웃음으로
모두들에게 인사합니다
지나온 방자처럼
소상스런 세상이야기도
풍경소리도 녹아내리는
사월초파일
두손 모아 피워내는 연등이
하나 둘 커지고
건넌듯 등쪽의 한겨울이
복숭아처럼 울려올때
눈색의 나라를 떠나
문 밖으로 찾아 부러울 내려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시각도 지체버린 어느순간에
피워보려 합니다

“나는 불자... 공지 느껴요”

선재들의 범명이야기

김상 <김문수·은석초등 6>

연화행사에서 범명을 받았는데 내 범명은 문수보살을 뜻하는 묘길상이다. 시험을 잘보거나 큰 대회에서 상을 탔을 때 역시 범명답게 잘 한다는 말을 들으면 자랑스럽고 범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앞으로도 범명처럼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 것이다.

무람심 <이소정·대조초등 6>

2학년 때 법주사 여름수련대회에서 수계를 받았는데 범명을 받으니 진정한 불제자가 된 것 같다. 불교행사나 법회에서 스님께서 이름대신 범명을 불러주시는데 범명을 들으면 기분이 흐뭇해지고 기쁘다. 내 범명의 뜻을 그동안 잘

<편집자 주>

정혜연 <김미아·신중초등 2>

구룡사어린이회에 다니다. 내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서 범명을 부르고 야단을 치신다. 범명을 들으면 부처님께 약속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더욱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반성하게 된다.

진실행 <김민영·불암초등 3>

93년 김천 직지사서 동생과 함께 해창스님에게 수계를 받았다. 동생의 범명은 선재다. 진실행이란 이름을 받아서 매우 기뻐했다. 진실되게 살라는 뜻으로 스님께서 지어주신 것 같다.

정인 <고명재·대구 파동초등 4>

한마음선원 전국어린이 하계 수련법회에서 범명을 받았다. 범명을 자주 부르다보니 이름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신기하다. 부모님께서 범명을 더럽히지 않도록 언행을 바르게 하라고 하신다. 범명을 받으며 다짐했던 어린이오교를 잘 지킬 것이다.

“착하고 슬기롭게 살라” 뜻 문수행 받아 선생님과 이름 같아 놀림 받아도 즐거워

물랐는데 이제부터는 마음 속에 꼭 담 아둘 생각이다.

진작 <박태운·행당초등 6>

93년 조계사 현근스님에게 수계를 받았고 지난 해에는 마정수기도 받았다. 절에 다니는 것이 즐겁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다. 올해는 연등행 행사때 발원문 낭독을 하는데 이것도 다 수계를 받아 범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자랑스럽다.

문수행 <백선영·은석초등 6>

학교에서 범명을 받았다. 범명이 없

을 때보다 잘못했던 일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다. 오빠가 가끔씩 문수행이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즐겁고 교회에서 세례받은 친구들이 세례명을 말할 때 나는 범명을 자랑한다. ‘문수보살님’처럼 착하게 살라는 뜻이라고 하니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송임 <신동룡·한성중 1>

조계사 어린이회에 다녔고 지금은 조계사 학생회에 다니고 있는 조계사파다. 해정스님에게 수계를 받고 범명도 받았다. 처음에는 오계를 열심히 지켰는데 지금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절에 다니고 스님 법문을 듣는 것이 너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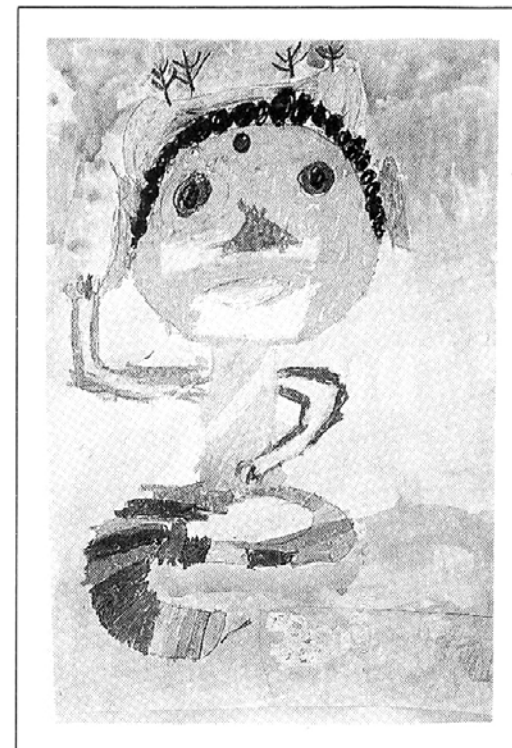
정현 <한정석·부산중등 3>

내가 범명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6학

년 때다. 엄마가 범명으로 나를 부를 때마다 부처님이 좋아하실 수 있게 좀 더 착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범명을 받을 때 온가족이 서로 축하하며 범명의 뜻을 같이 새겨주고 평소에도 늘 불러주고 했으면 좋겠다.

해일 <이재일·동대부고 2>

동리선배의 권유로 다니게 된 절에서 수계를 받았다. 범명을 생각하면 동해 일출의 장관이 눈 앞에 그려진다. 괜히 헛차고 생기어 나는 그때마다 힘이 솟는다. 담임 선생님인 정재일선생님의 이름과 같아 자주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제3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리기 대회 대상
송임 일 <송동룡 1>

그래도 좋기만 하다.

정정심 <박미경·명성여고 3>

1학년 때 구룡사에서 녹원스님에게 수계를 받았다. 계첩을 받아주고 내 범명을 보았을 때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껴 부처님께 감사의기도를 드렸다.

범오 <구본철·대구 계성고 2>

작년 12월야야 비로소 오계를 수지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고 범명을 받는다는 것에 사뭇 기대가 컸다.

범명처럼 깨달음을 얻어 정오의 태양처럼 밝아져서 기여운 못 중생들을 모두 비추겠노라고 친구들에게 장담했던 기억이 새롭다.

법천 <석동진·동대부고 2>

학교 수계식 때 범명을 받았다. 동진이란 이름은 부모님께 받은 이름이니 좋고 법천이란 범명은 부처님이 내려주신 것이니 더욱 좋다. 범명을 주신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내 일에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만화 백야경 이향원

물위에 표시를 한사람
옛날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건너다가 은그릇 하나를 빠뜨려 버렸다. 그는 은그릇을 다시 찾을 공리를 했는데

그는 물위에다 표시를 해 두었다

두달이나 걸려 목적이인 節子團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 앞에 흐르고 있는 강물을 보고 기뻐 어쩔줄 몰랐다

여보시오 갑자기 거기 들어가 은그릇을 찾으려 하는 겁니까

전에 잃었던 은그릇을 어디서 잃었는데 그러시오

두달전 바다에서 잃었소

앗! 바다에서?

아니! 바다에서 잃은 물건을 어찌 이 강물에서 찾으려는 거요?

그렇지! 지금 이 물위에 표시를 해둔 뒤 나중에 다시 와서 찾으시면 되겠구나

은그릇을 잃었을 때 금을 그려 표시해둔 물과 지금의 이물과 별 다름이 없으니

내 은그릇이 여기 있을 것이 틀림없지 않겠어요

푸하하하 저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물이야 비록 다르지 않나지만 거기서 잃은 물건을 여기서 찾은들 그것이 어찌 나오겠소

이것은 外道들이 바른 행을 닦지 않고 선과 비슷한 것을 닦다가

중간에 잘못을 알고는 괴로워 하면서 해탈을 구하는 것과 같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바다에서 잃은 은그릇을 강에서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 비워버려 더욱 우뚝선 저 민둥산처럼 욕망의 가슴들 자꾸자꾸 비우게 하소서!

채움의 고통과 비움의 행복을 속아낸 불교문학 그 서사의 향기

1억3천만원 고료
제1회 불교문학상 수상작

비어있는 날들의 행복

이상우 장편소설

탐욕의 시대, 길은 위대한 포기밖에 없다.
저 질긴 욕망과 탐욕의 윤희고리에 얽혀 신음하는 중생들. 헛된 삶의 무게에 눌려 휘둥거리며 얼마를 더 가야하는가? 잠시 고개들어 세상을 보면 천지에 있고 없음이 따로 없는데 아 그렇다. 채움과 비움이 하나되는 삶이어. 탐욕의 시대에 헤쳐나갈 길은 위대한 포기밖에 없다.

‘진흙속의 건성’이라 부를 만큼 주인공의 인물 형상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화자의 이야기로부터 주인공의 삶으로 서사의 중심을 옮겨가는 이야기 전개방식에 호감을 갖게 한다. 그것은 불교를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 불교적 양상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특히 소설적 어법에 충실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된다.

■홍기삼 조평래(심사위원)

불교와 대중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작품의 전개방식이 독특하며 후경화의 기법으로 서서히 작품정신으로 유입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절입가경의 묘미에 빠지게 한다. 이 작품은 불교소설의 또다른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불교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큰 의의가 있다.

■조민(민족통일 연구원 연구위원)



전2권 신국판 각권 값 5,800원 *지금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